

文돌이님 논술 첨삭 (2013 연세대학교 인문 아름다움)

문제1.

1. 첫 번째 문장에 의문문은 답안 작성하는데, 불필요하고 의미없습니다. 의문문은 없애시고.
2. 1문단 자체가 또 1문장으로 이루어져있네요. 사실상 의문문 제외하면 1문장이라 1문장은 1문단으로 성립되지 못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3. 또한 3문단에서 1문장이 1문단이 되었는데, 2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형식을 구성하시면 안되요.
4.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만 잡아드렸는데 비교의 내용과 타당성(근거 보충)에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쓴 글로 보여지네요. 주장이 충분하고, 그 주장을 보충하는 근거마저도 제시문 상에서 충분히 보충하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에요. 이정도면 합격권이라고 봅니다. 물론 제시문 (가)의 하드 포인트는 잡지 못하셨는데 이건 수석차석 가를 정도로 어려운 부분이라 사실 잡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시다면 제가 2~3일내로 모범답안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답안 읽어보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으로 한번 더 가를 수 있어요.

문제2.

1. 우선 발문에서 제시문 (라)를 여러 관점에서 해석하라고 했는데, 연세대학교에서 이 발문은 항상 나오는 ‘대응’ 유형과 동일한 형식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대응 문제에서는 A의 관점으로 B를 해석하시오.처럼 A라는 제시문 자체가 주어지는데, 여기서는 제시문이 주어지지 않죠. 그러나 대응의 유형자체는 동일합니다. 제시문 (라)를 (가~다)에서 가능하다면 모두 대응해주면 됩니다. 왜 (가~다) 냐구요? 저희가 아는 제시문은 이것뿐이니깐요. 이 외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게되면 논리적 비약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은 제시문밖에 없어요. 이에 기반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죠.
2. 구체적으로 제시문 (가)의 주제는 순리를 따르자지만, 여기서 문인화가들은 인위적인 것을 중요시하죠. 왜? 경제적 가치라는 이유로요. 그럼 제시문(가)에서 문인화가의 관점을 끌어오면 제시문 (라)는 인위적인 물방울이라는 가치를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으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또 제시문 (나)를 통해서 (라)를 보면 자연과 인위가 조화될 때 최고다! 인데, 이를 따라서 보면 물방울 다이어는 원석(자연에 기반) 가공(인위적 개입)하는 즉, 자연과 인위의 조화로 볼 수 있죠. 따라서 (라)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4. 제시문 (다)도 마찬가지로, 자연과 인위는 역설적으로 동일한 것인데 물방울 다이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원석보다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사실 저희가 다이어를 생각하면 원석보다는 물방울 모양을 생각하니깐요. 이처럼 물방울은 자연스러운 존재처럼 보이지만, 사실 인위성을 철저히 숨긴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제시문 (가~다)를 통해서 (라)를 해석하고, 이를 그대로 가져가서 (가)를 3번 비판해 주면 됩니다. 이처럼 가치가 있고, 조화로서 아름답고, 역설적 합일을 이루는 물방울 다이어몬드를 왜 무조건 까고 있냐? 라구요.
6. 이게 이 글의 사고방식이고 답안의 형식인데 답안에서는 일단 첫문단에 ‘경제적 가치’ 로만 해석하고 이로 그냥 ‘가’를 분석해버리는 편협한 분석으로 끝이 납니다. 이는 일단 첫 번째로 발문에서 ‘여러 가지관점’으로 분석하라는 말을 무시한 발문 불이행이며, 만약 2~3가지 관점이 생겼다 하더라도 기출분석을 통해 쌓인 사고를 통한 답안작성이 아닌, 우연적으로 제시문 (라)를 단순히 가치로만 바라본 우연한 답안작성으로 보여집니다. 기출분석을 충분히 했다면 제시문 (라)를 (가~다)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더 풍부한 답안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총평- 총평을 하자면 1번답안은 형식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비교를 아주 잘 잡으셨습니다. 제시문의 논지와 근거보충도 충분하구요. 합격권이긴 하지만, 최고로 우수한 답안은 아닙니다. 하드포인트는 말씀드린대로 없구요. 합격권에서 문안한 답안이죠. 하지만 2번문제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제시문 끼리의 대응이라는 유형에 대한 반복적 숙달이 되지 않고 단순히 여러 가지 관점을 경제적 가치라는 외부적 관점을 가져왔는데, 사실 경제적 가치는 제시문 (가)의 문인화가의 관점과 동일하나 답안작성을 했을 시에 제시문 (가)를 생각함으로써 이 답안을 작성했다기 보다는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제시문 (라)를 바라봤을 가능성이 큼니다. (일종의 배경지식이죠.) 따라서 2번문제를 통해 기출분석의 반복적 숙달의 중요성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만약 시험이라면 합격은 힘들었을 듯 합니다.